

소지마립간[炤智麻立干] 국가체제를 정비해 왕권과 민생의 안정을 이룩하다

미상 ~ 500년(지증왕 1)



경주 서출지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소지마립간은 신라 제21대 왕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각종 제도를 정비해, 김씨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왕권의 강화를 이루었다. 자연재해가 빈번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접 민생을 살피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인(聖人)이라 칭송받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잦은 공격을 받았으나, 나제동맹을 기반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2 소지마립간의 가계와 왕위계승

소지마립간은 비처마립간(毗處麻立干)이라고도 한다. 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소지(炤知, 照知) 혹은 비처(毗處)이다. 아버지는 제20대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첫째 아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머니는 서불한(舒弗邯) 미사흔(未斯欣)의 딸 김씨이다. 왕비는 선혜부인(善兮夫人)으로, 이벌찬(伊伐儉) 내숙(乃宿)의 딸이다. 『삼국유사』에는 기보갈문왕(期寶葛文王)의 딸이라 기록되어 있다.

소지마립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6촌 동생인 지증왕(智證王)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음을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0년(소지마립간 22) 9월, 왕이 날이군(捺已郡)에 행차했을 때, 파로(波路)라는 사람이 왕에게 딸 벽화(碧花)를 바쳤다. 왕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환궁한 뒤 벽화가 보고 싶어 몇 차례 찾아가 관계를 하였다. 날이군으로 가던 중 한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노파가 왕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비판하였다. 왕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 벽화를 궁의 별실로 데려왔고,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한다. 관련자료 그러나 이 해 11월 소지마립간이 사망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소지마립간의 죽음을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479년 자비마립간이 즉위 2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소지마립간은 전 왕의 장자로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자비마립간-소지마립간에 걸쳐 장자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들은 모두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의 직계 혈통을 강조하며 왕권의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